

48기 사미·사미니 수계교육 입재

조계종 10일 직지사서

조계종이 출가 수행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행자들을 위한 수계교육을 진행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3월 10일 제8교구본사 직지사서에서 제48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의 입재를 알리는 고불식을 진행했다.

고불식은 남행자 65명, 여행자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16일간의 수계교육 일정에 들어갔으며, 이들 중에는 '청소년출가·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소년출가자 5명이 입교했다.

교육원 교육부장 진자 스님은 입재사를 통해 "지혜를 이루고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자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아름다운 승가의 일원으로 성장해달라"고 입교행자들에게 당부했다.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은 "수행의 길은 짧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먼 여행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이번 수계교육을 계기로 수행자의 각오를 다지고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계교육 유나인 덕문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모든 중생들을 선지식으로 생각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용맹정진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교육원이 주관하는 수계교육은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열리며, 행자들의 교육과 습의를 위해 교수사, 갈마사, 습의사 스님 30여명이 상주하며, 행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이제 ‘1:1 코칭 포교’ 필요”

김응철 교수, 불교평론 ‘포교’ 주제 열린논단서 주장



한국사회 비종교인 증가 추세 소수 대면 포교로 변화 필요 포교 참여할 계가자 양성해야 수행력 갖춘 수행자 배출 및 불교 본연 역할에도 충실해야

효과적인 포교 방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통적 포교 방법인 대중적 범회의 참여자 감소하고 설법의 감화력이 감소하는 현 시점에서 대상에 따른 포교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종교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 추세를 감안해서 멘토-멘티 시스템을 활용한 소수 대면 교육이 포교 방법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비종교인이 급증하고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팀교육, 멘토-멘티 관계를 이용한 1:1 교육, 그리고 코칭 활동을 통한 지도력 향상 교육 등 직접 찾아가는 소수 대면 교육이 효과적"이라며 "소규모 팀 교육이 이뤄진 후에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묶어 조직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수행력을 갖춘 스님 배출 △불교 본연의 목적에 충실 △핵심 불자 교육과 체계화 필요 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종교 조직의 성패는 성직자의 자질과 역량 그리고 사회적 평판에 달려 있다"면서 "소수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행자가 출현해야 포교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교의 목적인 '취착없는 열반의 체득'은 개인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사회적 회향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 전 범교회의 체계적 실천이 필요하며 그 역할은 '중생구제와 불국토 건설'이라는 불교의 본질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승가교육 개혁불사 5년 역사 ‘한눈에’

조계종 교육원 6대 집행부 사업백서 발간

승가교육 흐름·전망 정리

주요 연표·연론 기사 망라



조계종 교육원이 2009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진행했던 승가교육 개혁불사의 발자취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백서가 발간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지난 제6대 교육원 집행부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원장 현응 스님과 함께 한 제6대 교육원 사업백서>(이하 백서·사진)를 발간했다.

<백서>는 △진단과 제언 △제6대 집행부 사업 분야별 내용 △제6대 교육원의 평가와 나아갈 방향 △부록 등 4장으로 구성됐다.

진단과 제언에는 6대 집행부 구성 초기에 종단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승가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하기 위한 중점 스님의 교시와 승가교육진흥위원장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답변, 승가교육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등의 내용을 담았다.

두 번째 장에는 집행부 사업 분야별로 추진한 업무성과를 정리하고 사업별 과제를 진단해 향후 사업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 장에는 6대 교육원의 전반적인 평가와 과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

부록편에는 주요 연표와 연론 주요기사

를 통해 그간의 과정을 생생감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6대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 위원과 교역직·일반직 종무원의 방명도 게재했다.

이번 <백서> 발간에 대해 교육원은 "초기에 각종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승가교육의 개혁안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한 자료를 모두 수록해 승가교육 개혁의 공성에 대해 밝히고 있다"면서 "사업별로 취지와 목적 및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고 성과와 과제를 제시해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6대 교육원의 전반적인 평가와 과제를 통해 7대 교육원의 사업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지고자 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서>는 조계종 홈페이지(http://www.buddhism.or.kr)의 '승가교육' 카테고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신성민 기자

‘총림 지정’ 위해 열린 법주사 산중총회 무산

구성원 274명 중 49명 참석

총림 지정을 위해 대중공의를 묻고자 했던 법주사 산중총회가 무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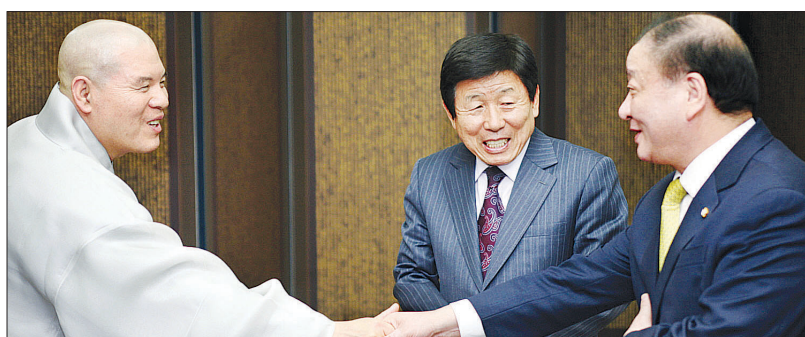
3월 19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법주사 산중총회(의장 현호)는 구성원 274명 가운데 49명이 참석해 성원미달로 유보됐다. 성원을 채우지 못한 산중총회는 간담회로 진행했다.

앞서 지난 3월 13일 법주사 운영위원회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총림 지정 협조 요청을 했다. 조실 월서 스님, 회주 월탄 스님, 운영위원장 설조 스님, 주지 현조 스님, 前 주지 도공 스님, 중앙총회의원 원경·정덕 스님 등이 총무원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종법에 명시된대로 산중총회에서 결의한 뒤 총림 지정 신청서류를 접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사형제 폐지 힘보탠다

사형제 폐지 특별법 발의 유인태 의원 등 요청에 자승 스님 친서 전달 약속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18일 유인태 새정치 민주연합 국회의원 등이 요청한 '사형제 폐지 특별법'에 뜻을 같이 할 것을 밝혔다.

조계종이 사형제 폐지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18일 유인태·강창일·임수경 국회의원이 예방한 자리에서 사형제 폐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방자리에서 유인태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참을 목표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며 "지난 국회에서 175명의 의원들이 사형제 폐지 법안에 동의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사형제는 존속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주저하는 의원들이 늘었다. 의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불교계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강창일 의원은 "생명중중, 불살생이라

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구현될 수 있도록 먼저 정각과 불자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승 스님이 친서를 발송하는 등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친서 발송을 약속하며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지도자들이 사형제 폐지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前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사형제 폐지 촉구 성명과 사형수 수계법회를 열어주었다. 서한 발송 등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제엠네스티가 지난해 발표한 2013년 사형선고 및 사형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198개국 가운데 사형을 완전 폐지한 나라는 98개국,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35개국 등 140여개 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에 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1997년 이후 17년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국제적으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이사장직 놓고 법적 공방

일면·영담 스님, 쌍방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학교 교직원들 중립 선언

중앙총회 정상화 결의문도

동국대 분규사태가 법적 공방 속에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사장 일면 스님과 이사장 직무대행 영담 스님, 양측의 가처분 신청 속에 교무위원들은 중립을 선언했다.

동국대 前이사장 정련 스님과 정련 스님으로부터 직무대행을 지명 받은 영담 스님은 3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일면 스님을 상대로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일면 스님도 영담 스님에 대해 3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이사장 직무대행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명도소송은 소유권자가 점유권자를 퇴거시키기 위한 소송이다. 정련·영담 스님이 제기한 가처분은 4월 1일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법적 공방 속에 동국대에서는 이사장 직무집행을 두고 신경전이 전개됐다. 3월 12일 일면 스님의 이사장직 출근에 영담 스님은 이날 저녁 이사장실을 폐쇄했다.

이후 일면 스님은 본관 5층 교무위원회 회의실, 영담 스님은 본관 4층 법인사무처 회의실을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양측의 법적 공방 속에 교무위원들은 중립을 표명했다. 정찬근 동국대 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교무위원들은 12일 "법인 이사장 자리를 두고 법률적으로 정리될 때까지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학교 교육과 행정은 제289회 법인이사회 결의에서 소임을 맡은 총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중앙총회는 제201차 임시회에서 '동국대 정상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학교 정상화를 촉구했다.

보련 기획

✓ 사찰 직거래 특가 판매 ✓ 다량 주문시 할인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불교용품 전문회사

| 연등 자동 승강 장치 | | 인등시공 |






| 초파일 용품 |

만 월 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중

공 단 등



황 금 등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생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H·P 010-9446-1862
TEL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